

지구촌 양계뉴스

러시아

미국산 가금육 수입 재개

러시아가 미국산 가금육에 대해 사실상 금수 조치를 내린 지 6개월 만에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미 농무부가 지난 7월 2일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농무부는 자국 생산업체들이 러시아로 수출 신청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면서 과산화수소나 염화 세틸 피리디늄 또는 과산화초산 등으로 살균 처리한 가금육을 수입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이번에 미국산 수입을 재개하면서도 염소를 이용한 소독은 계속 금지했다.

지난해 7억6천700만달러어치의 미국산 가금육을 수입했던 러시아는 염소(CI)를 이용한 항균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지난 1월 1일부터 미국산 가금육 수입을 제한했다.

러시아 당국의 규제로 지난 1~4월 미국산 닭고기의 러시아 수출이 84% 급감했으며, 미국 측은 가금류 최대 수입국인 러시아의 금수 조치를 풀기 위해 협상을 벌여왔다.

결국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24일 백

악관 정상회담에서 미국산 가금류 수출입 재개에 합의했다.

한편 올해 초 러시아 정부는 3년 내 가금류를 완전히 자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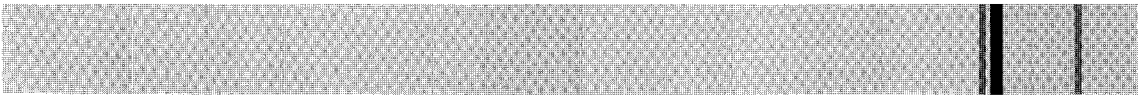
- 연합뉴스

미국

3분기 닭고기 생산량 증가 예상

지난 6월 18일 발표된 미국 농무부(USDA)의 축산물 수급 전망에 따르면 2010년 4월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30억 파운드로 집계됐다.

4월 도계마리수는 전년 동월보다 1.2% 감소한 7억1,300만마리였고, 출하 체중은 전년보다 2% 증가한 5.68 파운드로 도계마리수 감소가 출하 체중 증가와 상쇄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리당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1% 감소했다. 최근 5주간(5월 8일~6월 5일) 병아리 입식 마리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1억7,200만마리로 집계됐다. 이와 더불어 입란 실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분기 닭고기 생산량 증가율은 다소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2분기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91억2,500만 파운드로 추정되며, 3분기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94억 파운드로 전망된다.

2010년 4월 닭고기 기말 재고량은 전년 동월 대비 6% 감소한 6억 2백만파운드로 집계됐다. 그러나 재고 수준의 변화는 제품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닭 가슴살 재고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날개와 다리육 등의 재고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2010년 4월 기타 범주는 총 닭고기 냉동 비축량의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1분기 말 수출량 증가와 생산량 감소로 2010년 연말 재고량은 2천만 파운드 낮은 6억7천만 파운드로 전망된다.

최근 몇 개월 동안 닭고기 제품 가격이 어떤 제품은 강세인 반면, 어떤 제품은 약세로 서로 다르게 움직였다. 5월 닭고기 평균 도매가격은 파운드당 86.4센트로 전년 동월 대비 3센트 상승에 그쳤으며, 뼈없는 닭가슴육 또한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그 외 닭고기 제품의 가격은 전년보다 낮게 나타났다. 5월 닭다리 부분육 도매가격은 파운드당 32.2센트로 전년동월 대비 9센트 하락했고, 뼈없는 닭다리육은 전년 동월보다 23% 하락한 94.4센트로 나타났다.

2010년 1월~4월 미국 닭고기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20억 파운드 이상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최근 2개월 동안은 전년

동월 대비 2% 감소한 평균 5억5,200만 파운드로 집계됐다.

닭고기 생산량이 전년 대비 적절한 증가세를 보이고,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면 2010년 하반기 닭고기 제품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수출 수요가 높게 유지될 경우에 가능하며, 닭고기 제품의 가격 상승폭은 대체재인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가격 증가폭과 사료비 전망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달려있다.

- USDA

영국

‘닭이 달걀보다 먼저다’ 英 과학자 입증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해묵은 논쟁에 대해 영국 연구팀이 닭의 판정승을 내렸다.

영국 워위크대와 셰필드대 과학자들은 정부의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닭 난소에 존재하는 오보클레디딘-17이라는 단백질이 어떻게 탄산칼슘을 결정체로 전환해 달걀 껍데기를 만드는지 규명했다.

관찰 결과 오보클레디딘-17 단백질은 탄산칼슘 입자에 달라붙어 결정체 형성에 촉매 역할을 하다가 결정핵이 스스로 자랄 수 있을 만큼 커졌을 때 떨어져 나갔다.

달걀 껍데기는 짧은 시간에 이런 과정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만들어진다. 결국 달걀 형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단백질의 모체인 닭이 달걀에 우선한다는 해석이 가능한 셈이다.

온라인 과학전문 매체인 유레카얼러트(www.eurekalert.org)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이번에 달걀 껍데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밝혀지면서 앞으로 인공 결정체 형성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런던 AFP=연합뉴스

정도 나갔다. 기르기 시작한 지 2달 후부터는 알을 낳기 시작해 지금까지 약 5,000개의 알을 낳았다”며 “식욕이 없고 앞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을 제외하면 아직도 닭은 건강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양은 “주변 사람들은 이 닭을 잡아서 먹으라고 권하지만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닭이 죽을 때까지 계속 기를 것”이라며 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 프리임경제

중국

사람나이로 400살, '최장수 암탉' 화제



중국의 한 남성이 22년 된 암탉을 기네스 세계 기록에 보고했다.

지난 7월 26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오렌지 뉴스는 인터넷 판 보도를 통해 중국 운남성의 양샤오푸라는 남성이 1988년 사위로부터 선물 받은 최장수 암탉을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암탉은 현재 22세로 사람의 나이로 따지면 400세에 달한다.

양샤오푸는 “22년 전 이 닭은 무게가 500g

직립보행하는 암탉 화제



닭이 직립보행을?

지난 7월 중국에 직립보행을 하는 암탉이 있어 네티즌 사이에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7월 28일 중국 신화통신(sina.com)은 중국 장수성 진후현 신강 부두 근처에서 살고 있는 한 어민이 기르는 펑귄처럼 직립보행하는 암탉의 소식을 전했다.

사진을 보면 이 암탉은 다른 닭들과는 다른

자세로 서 있다. 마치 펭귄이 걸어다는 자세로 서있어 직립보행을 연상케 하고 있어 네티즌의 웃음을 자아냈다.

신화통신 온라인 판에 따르면 암탉의 주인은 “올해 봄에 이 닭을 사왔다. 병아리 때부터 다른 닭들과는 전혀 다른 걸음으로 다니더니 다 자란 후에는 마치 펭귄처럼 걷고 있다”고 이 암탉에 대해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걸음걸이만 이상한 줄 알았는데 다른 닭보다 잘 날지 못한다. 잠을 잘 때도 땅바닥에서 잠을 잔다”고 덧붙였다.

이 사진은 국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도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으며 사진을 접한 네티즌은 “정말 웃긴다”, “닭이 서있으니 귀엽기도 하다”, “병아리 때 허리(?)를 다친 게 아닐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뉴스엔

WTO

美, 중국산 닭고기 수입금지는 규정위반

미국의 중국산 닭고기 수입 금지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7월 29일(현지시간)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소식통을 인용해 WTO 판정단이 미국의 중국산 닭고기 수입 금지 조치가 WTO 규정과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WTO는 지난 6월 내렸던 임시 판결

에서도 미국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상무부 관계자들은 WTO가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중국측에 전달했으나 상무부가 아직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 소식통은 “결국 중국이 승리했다는 의미”라면서 “판정 내용은 1~2개월 내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로 미국은 지난 2007년부터 중단해 온 중국산 닭고기 수입을 재개하게 될 전망이다. 중국동물자원협회(CAAA)는 앞으로 중국산 닭고기 제품 수출이 10만~15만 톤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K>

- 이데일리

절대 포기하지 말라.
당신이 되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면,
그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라.

당신 자신에게 기회를 주어라.
스스로가 형편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래봐야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다.

목표를 높이 세워라.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

- 마이크 맥라렌